

〈제 63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재)신안군장학재단에 1천만원 장학기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신안군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신안군 장학재단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재)신안군 장학재단에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신안군 교육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아 광주공장

◆ 지역 아동·청소년 진로 설계 지원



기아 광주공장(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은 지난 11일 지역 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재능육성을 위한 기아 챌린지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아 광주공장이 8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는 멘토링 토크콘서트, 뮤지컬 도전기, 체험 예술

랜드 등으로 구성됐다. 기아는 이날 1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광주시교육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지역 사회 청소년들은 이번 챌린지에서 각계에서 활동하는 유명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꿈과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II. 광주경충 소식

〈중장년센터 제16,1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16,1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61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운영협의회〉



본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제2차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협의회는 노사민정 개별주체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노사 협력, 일자리 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협의체로,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2021년 광역-기초 노사민정 공동사업 및 노동동향 보고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 일지(5.10 ~ 5.14)

5.10 (월)	● 여성기업 심사	5.13 (목)	● 중장년센터 제1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5.12 (수)	● 중장년센터 제1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운영협의회		

〈제1518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주제: 일본은 지금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5월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연회장에서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를 초청 <일본은 지금>이란 주제로 제1518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지 1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빈번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북미 플레이트와 태평양 플레이트가 겹쳐 있는 해구로 앞으로도 10년 이내 자주 지진이 발생 할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인식이고 지질학자들의 이야기다. 이러한 일본지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코로나 19는 매일 6,000여명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초기 방역 실패와 환자의 관리에서도 미흡하여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여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도쿄올림픽은 일본 국민의 90%가 취소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부관계자들만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올림픽시즌에 6만명에 달하는 선수나 관계자들이 들어오는데 60% 정도만이 백신을 맞고 온 상태가 예상되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에게 패배한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취소가 되면 큰 재정적 부담만 남고 가장 실패한 올림픽 역사로 기록 될 것이다. 미일정상회담에서 스가는 대면으로는 최초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바이든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 노력을 지지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스가총리는 미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북한문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전이 옆에 있는 센카쿠열도 문제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 범위에 넣어 어떻게 영토를 지켜야 할지가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국익차원에서 한미일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평화공존을 위해 최소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1. 노사 동향

■ 경총, 「제33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

- 「한국노사협력대상」이 1989년 제정된 이후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가운데 경총은 5. 12 시상식을 개최
 - 시상식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시상자로 참석하고, 안경덕 고용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수상기업 노사대표들을 축하하고 격려
- 올해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大賞)에는 대기업부문 「넥센타이어», 중견·중소기업 부문 「세아제강», 「금융결제원」이 공동수상 했고 우수상(優秀賞)에 대기업부문 「한화디펜스», 중견·중소기업부문 「수산이앤에스」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시상에 앞서 진행된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하며, 노사협력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손경식 회장은 노사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경총과 한국노총 간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우선 협력 과제를 제시
 - 우선 협력 과제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의제 개발 TF 운영, ▲산업현장 안전 캠페인 시행, ▲안전 취약 사업장 지원을 위한 협의체 공동 구성 등을 제시

■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진행

- 대통령은 5. 10「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제시
 -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상병수당 도입 등을 언급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한편, 대통령은 5. 11「국무회의」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TF 구성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

■ 신임 고용부 장관은 취임 후 노사단체를 방문해 현안 청취

- 안경덕 신임 고용부 장관은 5. 7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 면담
 -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규제완화, 채용보조금 확대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또한, ▲노조법상 사용자의 대항권 보완,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 ▲코로나19 및 우리 경제 수준을 고려한 최저임금 안정 등을 요청
- 한편, 장관은 5. 10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
 - 장관은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노총이 정부와 소통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이나 인상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마무리

- 정부는 이달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최저임금위원 25명 위촉(5. 11)
 -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
 - ※ 공익위원 1명과 근로자위원 1명은 임기 미도래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고용부는 근로자위원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추천한 인원 가운데 같은 비율로 8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함. 다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임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원이 민주노총에 비해 많은 5:4 구조를 유지
 - 민주노총은 그간 2019년 노동조합 조직현황(고용부 발표)을 근거로 '제 1노총'의 지위를 주장하며 근로자 위원 5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으로 4명을 위촉
- 한편,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며 9,000여통의 문자 및 이메일을 보내는 이른바 '문자폭탄'을 발송

2. 법제 동향

■ 류호정 의원(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
- (주요 내용)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 류호정 의원(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철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강압·기망 등으로 근로자가 비진의의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행한 이후 철회가 불가능
- (주요 내용)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

■ 류호정 의원(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과 같은 사업확대 가능
-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부과

■ 류호정 의원(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4)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발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판결 과정에는 대략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당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수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3개월간 또는 최종 3년간이라는 체당금 지급 범위의 제한 삭제

■ 이수진 의원(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10)

- (발의 이유)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
- (주요 내용)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양벌규정을 법인 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시 법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

■ 최기상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 11)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주요 내용)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명단 공표